

호레이스 언더우드의 통전적 선교: 펜데믹 시대의 교회의 선교를 위한 교훈

박 보 경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과 교수

1. 시작하는 말

2020년은 한국사회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상황으로 인한 인명 피해뿐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조치로 인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험겨운 길을 막막한 심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정치적 이념에 따라 양극화는 격앙되어 표출되고, 진보적 정부의 방역을 위한 조치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해석하여 반발하는 보수진영과 결탁한 일부 극단적 우파진영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보는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행보들이 한국사회 전반에 교회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안에서의 전체 교회가 사회의 공공 유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종교행위만 고집하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교회의 증거사역은 완전히 막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다. 지금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교회는 화해의 사도가 되기보다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는 어렵게 회복된 현장예배 마저도 금지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정체성에 있어서 현장예배가 지닌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조치는 한국교회의 기존의 신앙형태로 볼 때 매우 견디기 힘든 조치이다. 현장예배가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한국교회는 현장예배 중심의 신앙체계를 도전받고 깊은 혼란 속에 빠져있다. 필자 자신도 현장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어렵게 현장예배를 드리면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격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주범인 양 궁지에 몰려있고, 실망한 신앙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급격하게 약화된 한국교회는 과연 이 펜데믹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망연자실해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적 과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오늘날과 같은 펜데믹 시대에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철저하게 통전적인 것이 되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전성이란 복음소통의 현장으로서의 세상과 인간에 대한 통전적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역의 통전성을 확보하는 여정, 그리고 나아가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야하는 존재로서의 세상 인식의 통전성을 모두 담아내는 포괄적 통전성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대한 포괄적 통전성의 실천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펜데믹 시대에 교회의 포괄적 통전적 선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 약 140년 전 한국 땅에 처음 선교사로 도착하여 30여년이 넘게 자신의 생애를 바쳐 한국사회에 복음을 전한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을 조명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지 숙고해보고자 한다. 그의 사역의 한국의 초기 선교사로서 수많은 공헌을 남긴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을 선교학적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통합적인 선교를 맹렬하게 실천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의 사역은 참으로 “넓은 날개(wide wings)와 복음의 불덩이(the bundle of fire)의 삶”이었다¹⁾. 그의 아내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는 그의 생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지배적인

1)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이만열 역, 『언더우드: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시작 이야기』 (서울: IVP, 2015), 58.

성격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하면서도, 교파나 인종,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²⁾ 즉, 당시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확신과 함께 통전적 선교이해를 지니고 그것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물론 필자는 언더우드의 선교가 21세기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통전성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개인의 삶과 사역은 그 시대적 공간과 시간 안에 담고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더우드는 그 당시의 상황 안에서 어떤 생각과 모습으로 통전적 선교를 수행하였고 과연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이 글은 30년이 넘도록 자신의 생애를 바쳐 조선인을 사랑하였던 언더우드의 종횡무진의 조선을 향한 헌신적 사역을 선교학적으로 분석해보면서 언더우드의 통전적 선교가 지금 한국 상황속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명해볼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언더우드의 삶과 사역을 통전적 선교의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서 2장에서 통전적 선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핀다. 3장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을 앞장에서 다루었던 통전적 선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4장에서는 언더우드의 통전적 선교이해를 조명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서의 통전적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할지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 통전적 선교의 내용

통전적 선교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통전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통전성은 “온전한”, “전부의”, “분리되지 않은”, “전체의”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통전적이란 단순히 “부분의 총화”가 아니며 ‘온전함과 성숙함을 향한 전체성’을 의미한다. 즉, 통전성이란 차이를 무시한 획일성이나, 억지적 통합이 아니며, 그렇다고 차이로 인한 양극단화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긴장을 잃지 않고 상대를 보완함으로써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통전적 이해란 “온전함과 충만함으로의 지속적인 발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학계에서는 통전적/총체적 선교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에큐메니컬 진영에서의 통전적(Holistic) 선교는 1975년 나이로비 총회에서 제안되었다. 대회는 “온 교회(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을 온 세상(whole world)의 전인(whole person)에게 전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통전적 선교(wholistic mission)가 천명되었다.³⁾ 그런데 이 통전적 선교 개념의 형성은 세계교회협의회 산하의 전도와 세계선교위원회(CWME)가 주최한 방콕대회(1972-1973)에서 등장한 구원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방콕 대회에서는 네 가지 차원의 구원을 천명하였다. 첫째, 구원은 타인을 착취하는 일에 대하여 경제정의를 위해 사역하는 것, 둘째, 구원은 타인에 의한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사역하는 것, 셋째, 구원은 인간이 타인을 소외하는 일에 대항하여 연대하는 사역, 넷째, 구원은 개인 삶의 절망에 대항하여 희망을 위해 사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야한다. 즉, 정치적 자유없이 경제적 정의가 없고, 경제적 정의없이 정치적 자유가 없고, 연대없는 사회적 정의가 없고, 사회적 정의 없는 연대도 없다. 희망이 없이는 정의도 인간존엄도 연대도 없고, 정의, 존엄, 연대 없는 희망도 없다.⁴⁾ 이중 어느 것도 잊어버리면

2) 위익책, 20.

3) 이용원, “빌링겐에서 나이로비까지: 선교 신학적 고찰,” 『선교와 신학』, Vol. 4, (1999), 94.

4) 케네스 로스, 금주섭, 기리아키 아브치, 로더릭 휴이트 편, 『에큐메니컬 선교학: 변화하는 지형과 새로운 선교개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152-153.

구원의 총체성을 부인된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차원의 구원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 통전적 선교다. 이후 에큐메니컬 진영은 꾸준히 그 내용을 확장하여 통전적 선교의 의미를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 착취와 빈곤화의 힘에 맞서서 투쟁하는 것 등을 통전적 선교의 과제로 강조하였고,⁵⁾ 창조세계를 착취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 통전적 선교의 구체적 실천행위로 강조되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옹호사역, 전 세계에 사회에 만연한 정치 경제적 폭력의 극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종교 간의 열린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통전적 선교의 과제 안에 포함시켰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의 군사패권주의의 강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한 대부분의 비서구지역의 빈곤의 일상화에 저항하는 것, 청년과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일 등에 헌신하는 것 등으로 통전적 선교의 의제로 확대되었다. 결국, 지금의 에큐메니컬 진영은 통전적 선교의 주제아래 이와 같은 사회, 정치, 문화, 환경적 차원의 주제들을 선교적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제 통전적 선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자. 통전적 선교에 대한 탁월한 논지를 전개한 다렐 구더(Darrell Guder)는 “통전적 신학을 한다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복음사건이 우리들의 신조와 신학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 이상임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증거가 진리에 대한 연약한 인간의 반응일 뿐이며, 깨어지기 쉽고, 유한한 인간의 사고와 언어의 그릇을 통해서 표현될 뿐, 결코 완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⁶⁾ 구더의 의하면, 진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온전함과 충만함의 계속적인 발견으로서의 통전성을 다른 말로 “교회의 지속적인 회심(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의 과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교회는 자신 스스로 온전한 통전성을 향한 여정 중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다 온전한 이해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그럴 때에야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자신의 선교에 대하여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참으로 통전성은 더 성숙한 이해를 향한 열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며,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지는 과정으로 향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신학함의 부지런함을 담고 있다.⁷⁾

샤론 조오지(Sherron George)는 통전적 선교를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플레로마(pleroma)” 즉, 풍성함과 충만함, 가득 채움과 같은 개념과 연결하였다. 조오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사역이 교회와 우주에 가득 찰 때, 그 결과 모든 존재의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영적, 물질적, 사회적, 그리고 감성적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다차원적 선교적 활동을 통해서 경험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전도와 공화사역과 사회정의의 사역이 모두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자신의 은사와 다양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선교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⁸⁾

특히 조오지는 하나님의 통전적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3가지 부분의 온전한 통

5) 위의 책, 159-160.

6) Darrell Guder, “통전적 선교신학을 향하여: 세계, 공동체, 이웃,” 『선교와 신학』, 15집, (2005.6:153-177), 166.

7) 박보경, 『통전적 복음주의 선교학』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6), 5.

8) Sherron George, “God’s Holistic Mission: Fullness of Parts, Participants, and Places,”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1, No 3, (2013:286-299), 287.

합(integration)이 선교적 대화(Missionary dialogue)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분, 즉 복음전도, 금홍사역, 그리고 정의구현사역은 지속적인 선교적 대화를 통해서 창조적인 융합과 확장을 경험해야한다.⁹⁾ 조오지는 오를란도 코스타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융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의 선교가 복음전파를 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던지, 혹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해방을 위해 참여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증거행위로서 서로 융합할 수 있는가(capable of integrating)에 달려있다.¹⁰⁾

통전적 선교의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장 폴 헬츠(Jean-Paul Heldt)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헬츠는 의료선교사로서의 오랫동안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인간이 직면한 곤경은 영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헬츠는 통전적 선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사회적 관심을 제쳐놓고 선포만을 고집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앞뒤를 잘라 내 버리는 것이며, 좋은 소식을 서둘러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며, 현실세계에 살고있는 현실의 사람들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또 정반대로 사회개혁에만 집중하는 것은 영적 차원이 결여된 사회의 인본주의적 행동주의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두 접근 다 비성경적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질의 총체성을 부정한다. 우리는 총체적으로(whole)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이 우리의 인간성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속, 회복 및 선교 역시 정의상 총체적일(holistic) 수밖에 없다.¹¹⁾

헬츠에 의하면, 인간 존재의 필요를 적어도 4가지 차원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즉, 인간은 적어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차원의 필요를 채워야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도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차원을 함께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참다운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원을 모두 담아내야하며, 결국 참다운 선교란 본래적으로 통전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요약하면, 통전적 선교란 포괄적 인간이해에서 시작한다. 즉, 인간은 영적 존재일 뿐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차원을 모두 함께 담고있는 포괄적 인간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포괄적 인간의 통전적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선교행위를 통전적으로 실천하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전적 선교는 한 개인이나 개교회가 온전하게 이것을 수행할 수 없기에 다양한 교회들의 선교적 대화를 통해 보다 깊은 선교 이해와 실천으로 완수될 수 있다. 따라서 통전적 선교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교회 전체가 필요하다.

9) 위의 글, 290.

10) Orlando Costas, *The Integrity of Mission*, (San Francisco, Harper & Low, 1979), 75.

11) Jean-Paul Heldt, "Revisiting the Whole Gospel: Toward a Biblical Model of Holistic Mission in the 21st Century,"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32, (2004), 166.

3. 언더우드의 생각과 사역에게 발견한 통전적 선교

본 장에서는 언더우드의 생각과 사역을 앞장에서 언급한 통전적 선교의 관점에서 조명해보려고 한다. 언더우드의 선교사역의 통전성은 그의 신학적 통전성에 근거한다. 김도훈은 언더우드가 한국교회역사에서 최초의 통전적 신학자, 혹은 통전적 활동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하였다.¹²⁾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에서 발견되는 통전성은 복음전도를 통한 회심과 교회개척사역, 병든자를 돌보는 치유사역, 가난하고 헐벗어 고통당한 조선인들을 향한 참다운 연민에 근거한 구제사역, 풍전등화의 암울한 민족적 격변의 혼란시기에 민족재건의 열망을 담은 조선인들을 위한 고등교육사역과 문명개화론에 근거한 사회개혁을 위한 문서사역 등이 모두 함께 아울러져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영역의 사역이 어떠한지 살펴보자.

1) 의료사역과 복음전도의 통전성

언더우드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즈음에 이미 세워진 제중원은 관민합작의 의료선교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의료와 교육을 통한 간접선교 방식을 그 시작점으로 잡았고, 본인도 제중원에서의 보조적 의료 활동으로 한국선교를 시작하였다. 제중원은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으로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제중원은 이후 초기선교사들의 활동처가 되었기에 언더우드로서도 그 시작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¹³⁾ 더욱이 이후에 결혼하게 된 아내가 의료선교사로 활동하였기에 일찍부터 영혼구령의 열정과 육신의 질병을 함께 돌봐야한다는 인간 이해의 통전성이 그의 내면에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1895년 콜레라가 전국에 퍼졌을 때,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남편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시 곳곳의 검역소의 책임을 맡았고, 그를 돕던 한국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언더우드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방역을 위한 훈련과 소독 방법에 대하여 집집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¹⁴⁾ 이후 자신들의 진료소가 콜레라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사용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밀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한국인 기독교인들을 이곳에서도 동원하여 환자들을 돌보는데 힘을 보탰다. 릴리아스 언더우드에게 의하면 의료진들이 저녁마다 진료소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입원한 환자들이 목격할 수 있었는데,¹⁵⁾ 이것은 일종의 공개된 전도 사업이었다. 콜레라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한 치유사역은 자연스럽게 복음전도를 위한 노력과 통합되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1893년의 한국장로회선교공의회의 선교 원칙에서도 잘 나타났다. 이때 결의된 의료선교의 원칙은 의료사역과 복음전도사역이 함께 통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¹⁶⁾ 즉, “선교의사들이 선교활동의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환자를 가급적 오랫동안 개별적으로 치료하면서, 치료와 함께 의사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환자가 가슴깊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하며,” 또한 다음으로는 “지방에서 치료를 위해 올라와 장기간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돌아간 환자들을 고향땅으로 심방하여 치료 후에도 계속

12) 김도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통전적 신학적 정체성과 온 신학의 과제” 『장신논단』, Vol. 48, No. 1, (2016.3:115-144), 121.

13) 서정민, “언더우드와 제중원 공동체”, 『언더우드 기념 강연집』, 언더우드기념 사업회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86.

14)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 (서울: 도서출판 이숲, 2011), 176.

15) 위의 책, 178.

16) 서정민, “언더우드와 제중원 공동체”, 94-95.

돌보아야하는데, 그들이 병원에 있을 때 받은 따뜻한 환대와 돌봄이 하나의 매개가 되어 전도의 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도 하였다.¹⁷⁾ 서정민에 의하면, 이 제안은 당시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빈톤(C. C. Vinton)의 제안을 공의회가 채택한 것인데, 빈톤의 제안 뒤에는 언더우드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¹⁸⁾ 언더우드는 초기 제중원을 통한 간접선교를 강조하였던 알렌의 조심스러움과는 달리, 의료사역과 복음전도사역이 서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1899년 언더우드가 보고한 “한국선교역사에 대한 개요”에서도 의료선교가 얼마나 전도사역과 깊게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처음부터 의료사역에는 “복음전도”적 차원이 내재되어 있었다. ...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대기실에는 도서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며 여기서 모든 환자들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위대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 의료사역을 통해 많은 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환자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매일 드려지고 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많은 한국인 직원들은 자신의 말과 행위로 모범을 보이고, 기독교소책자를 활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려 힘쓰고 있다.¹⁹⁾

정리하면, 언더우드가 생각하는 의료사업은 복음전도의 차원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통전적 이해는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술을 제공하는 것이 전도사역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의 통전적 인간이해는 의료사역과 복음전도사역을 통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2) 교육과 복음전도의 통전성

언더우드의 초기 사역에서는 복음전도를 구심적으로 교육과 구제사역이 함께 통전적으로 진행된 반면에, 후기로 갈수록 복음전도와 교육사역이 새로운 방식으로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선교적 차원을 담아 진행하는 보다 더 포괄적인 선교이해로 확장되었다. 개인의 선교사역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선교이해에 근거한다. 언더우드의 선교이해가 포괄적인 것은 그가 전개한 사역이 통전적이기 때문이다. 언더우드가 펼친 사역은 평양지역의 선교사들과 비교할 때 더 통전적이다. 평양지역의 선교사들은 복음전도사역에 더 치중하는 한편, 제중원을 시작한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은 국법으로 금지된 전도를 함부로 시도함으로써 어렵게 시작된 의료사역조차도 막히게 될까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서 언더우드는 중도적 입장을 보였다. 서정민은 “언더우드가 평양의 마펏이나 다른 보수적인 선교사들과도 비교하여 이들보다 “덜 복음적이며”, “덜 직접적인 선교방식의 실행자”라는 평가도 있으나, 이러한 평가는 그의 “보다 넓은 의료와 교육, 복음전도의 사역이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²⁰⁾

17) C. C. Vinto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11, No. 9, (1893.9), 671; 서정민, “언더우드와 제중원공동체”, 95쪽에서 재인용.

18) 서정민, “언더우드와 제중원 공동체”, 94-95. 서정민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즉, 당시 빈톤과 언더우드와의 관계, 또한 언더우드의 공의회 안에서의 지도력, 당시 제중원에서 표면화되었던 선교목표에 대한 언더우드와 알렌의 이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언더우드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19) 김인수,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1885-1916)』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344-345.

20) 서정민, “언더우드와 제중원 공동체”, 92.

언더우드는 적극적인 전도사역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였던 알렌과는 처음부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언더우드는 1886년 7월 11일 노춘경에게 한국최초의 세례를 집례했다. 당시 세례를 집례하는 행위는 “국법을 어기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임을 설명하였으나, 노춘경은 세례를 받기 원했고, 자신도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속에 세례를 강행하였다.²¹⁾ 이듬해 1887년 1월 23일에는 황해도 솔내에서 3명에게 세례를 집례했다.²²⁾ 또한 언더우드는 1887년에는 평안북도 의주까지 홀로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떠났고, 1888년 봄에 아펜젤러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1888년 11월에는 3차 전도여행을 떠났다. 1889년 3월에 4차 전도여행은 신혼여행을 겸하여 떠났고, 1895년 여름 5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전파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²³⁾ 또한 언더우드는 교회개혁에도 대단한 열정을 보였다. 그는 1887년 9월 27일에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14명의 세례교인들 중에서 2명을 장로로 선출하여 최초의 조직교회인 정동교회 (새문안교회)를 창립하였다.²⁴⁾

그런데 언더우드의 후반기 선교사역은 복음전도사역과 교육사업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사업의 독립적이며 고유한 선교적 차원을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된 선교이해가 교육사역과 전도사역의 관계에 있어서 확장된 통전성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언더우드의 교육사역은 그의 사역 후반기에 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기어코 완수하였던 서울에서의 대학 설립을 통하여 절정을 이루었는데,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은 그의 확장된 선교이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된 선교이해를 최재건은 미시오 데이(Missio Dei)를 지향하는 선교로 평가한다. 최재건에 의하면, 평양주재 선교사들은 대체로 미시오 에클레시아(Missio Ecclesia)를 지향하였다. 평양주재 선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통한 교회지도자의 양성은 결국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 자체를 기독교적 정신으로 수행한다면 그 자체가 선교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²⁵⁾ 이러한 언더우드의 신학적 확장은 그의 후기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의 선교사역 경험의 축적과 동료 선교사, 에비슨의 영향과, 평양주재 선교사들의 계속되는 반대, 선교현장에서의 현지인들을 통한 영향 등이 함께 작용하여 발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에비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의 평양선교사들과의 불화로 인해 언더우드와 뜻을 같이한 에비슨 선교사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에비슨과 언더우드는 선교철학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언더우드로서는 에비슨의 선교철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선교에서의 의료와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신하였다. 즉, 다른 선교사들이 의료활동을 본격적 선교의 예비단계 정도로 이해했으나, 언더우드는 의료 활동을 단순히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이라는 에비슨의 의료선교철학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²⁶⁾

정리하면, 언더우드의 선교사역은 초기보다는 후기에 더욱 확장된 통전성을 보이고 있다. 선교사 초년병으로 현장에 왔을 때, 알렌의 의료사역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펼치기를 원했던 언더우드였다. 그러나 선교사역의 후

21)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36.

22) 위의 책, 54ff.

23) 정종훈, “언더우드의 생애, 선교활동, 정신에 비추어 본 기독교 대학의 학풍,” 『장신논단』, Vol 47, No. 1 (2015.3: 233-258), 241.

24) 정종훈, “언더우드의 생애, 선교활동, 정신에 비추어 본 기독교 대학의 학풍”, 242.

25)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의 이상과 실현”, 『언더우드기념 강연집』, 420.

26) 여인석, “언더우드와 연세”, 『언더우드 기념 강연집』, 496-497.

반기로 가면서, 현장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동료 선교사들 간의 갈등과 그 와중에 자신과 뜻을 같이했던 동료의 선교이해에 대한 공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더우드의 선교이해도 통전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선교사는 현장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며 그 신학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인재 양성의 통전성

언더우드의 통전적 선교이해는 그의 인재 양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교회개혁 후 한국인 전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겨 돌보게 함으로써 교회내의 목회 지도력을 세우는 일을 펼쳤다. 그가 개척한 교회들을 한국인 목회지도자에게 돌보게 함으로써 현지 지도자들의 목회지도력을 세워나갔다. 서울과 인근지역에서는 서상륜, 김총경, 박태선, 유홍에게 맡아 전도사역을 하도록 하였고, 고양과 김포지역에서는 신화순, 도정희가 맡아 전도사역을 펼쳤다. 이만열의 의하면 그의 교회설립사역은 1891년부터 1901년까지의 사역의 2기에 주로 진행되었다.²⁷⁾

그는 교회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뿐 아니라, 한국사회를 근대화로 이끌 사회개혁의 일꾼을 길러내는 일에 또한 헌신하였다. 그의 인재 양성 사역이 현실 참여적이었던 것은 그의 조선왕궁과의 협력, 일본제국의 폭력적 간섭과 이어지는 침략에 대한 비판적 태도 등이 함께 작용하였다. 또한 기독교복음에 열렬히 반응한 평안북도 지역의 청년들의 기독교예로의 회심이 개인적 관심보다는 사회개혁적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지하면서, 언더우드는 일찍부터 조선에 필요한 기독교복음이 현실 참여적이어야 함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모든 상황들이 그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는 기독교신앙의 정치 사회의 개혁적 측면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의 문서선교사역도 비슷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가 창간한 “그리스도 신문”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할뿐 아니라, 한국의 지식인들과 민중들을 상대로 교육 정치 경제 산업 및 농촌생활 등의 계몽을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단순히 교계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비롯한 산업과 국내외 문제를 다루었다.²⁸⁾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는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YMCA를 만들어 사회의 상류층 청년들을 동력화하여 조선을 일제의 폭력에서 구하려 하였다. 이러한 언더우드의 포용력과 폭넓은 선교적 태도를 정종훈은 언더우드의 성육신적인 태도로 평가 하였다. 즉, “한국교회 초기의 복음주의 계열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신앙영역과 세상영역을 구분하고 신앙영역에 비중을 크게 두었던 반면에 언더우드는 성육신의 정신 속에서 신앙을 세상 영역 안에서 꽃피워야 할 것으로 이해했다”고 평가한 것이다.²⁹⁾

언더우드가 꿈꾸었던 현실 참여적이며 통전적인 인재양성의 과정은 대학설립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최재건에 의하면, 언더우드의 대학교육의 방향은 처음부터 사회 개방적 성격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숭실대학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기르는 것에 교육목표를 두었기에 입학조건을 기독교인으로 한정한 반면,³⁰⁾ 언더우드는 비기독교인들도 수용하여 산업분야를 포함한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을 지향했다.³¹⁾ 그는 이 대학이 종교교육뿐 아니

27) 이만열,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와 활동,” 『언더우드 기념 강연집』, 17.

28) 위의 책, 16-17.

29) 정종훈, “언더우드의 생애, 선교활동, 정신에 비추어 본 기독교대학의 학풍,” 『장신논단』 Vol. 47, No.1, (2015.3:233-258), 250.

30)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의 이상과 실현”, 413.

31) 위의 글, 414.

라, 상업, 농업, 산업의 전문지식의 배양을 위한 대학으로 자리를 잡기를 바랐다. 특히 당시 평민의 직종 중에서 약간 천시되는 직종으로서의 상업을 격려하기 위해 상학과를 설치했던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³²⁾ 특히 언더우드는 1900년 2월 20일 엘린우드 박사에게 보낸 편지 속에 보다 광범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교육을 서울에서 시작해야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언급한다. 그는 먼저 교회를 하나로 유지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기여할 교회의 지도자들 교육할 필요가 있고, 둘째,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육함으로써 교육기관을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현재까지의 전도사업의 주 대상은 중하계층과 하류계층이었는데 교육 사업을 통해서 중상계층과 상류계층을 포괄할 수 있기에 서울에 이런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³³⁾ 이 내용에 의하면, 그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일반인들을 교육하는 일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상류층을 향한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리하면, 언더우드는 포괄적인 인재양성의 비전은 인재양성에 있어서도 통전적이었고다고 평가된다. 그는 교회를 이끌 한국인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는 새문안교회와 이어지는 많은 교회개혁을 통해서 한국인 기독교지도자들을 양성하였다. 그는 사회개혁을 위한 인재 양성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인재양성에 있어서의 통전성을 견지하였다.

4) 문화와 종교이해의 통전성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의 세계관 속에 선교현장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깊은 존중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체로 19세기 후반까지의 서양인들에게 비치어진 한국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³⁴⁾ 언더우드도 그 시대의 관점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역의 후반기로 갈수록 언더우는 한국문화와 종교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에 깊은 우호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착취와 수탈을 가해 갈수록 나빠지는 부패한 관리들의 정치운용에 대하여 비판하면서도,³⁵⁾ 일반 한국인에 대한 그의 인식은 아주 호의적이었다. *The Call of Korea*에서, 다음과 같이 언더우는 일본인과 중국인을 한국인과 비교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만큼 냉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만큼 변덕스럽지도 않다. 그들은 옹고집과 같은 무분별한 보수적 성향이나, 변덕스럽다고 할 만큼 쉽게 순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냉정하게 비교 검토하여 만일 정말 좋은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앙과 전통을 경솔히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미신에 매여 있지 않으며, 그들의 옛 종교에 빠져 있지도 않고, 과거의 전통을 맹신하지도 않는다. 반

32) 위의 글, 414.

33)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108.

34) 서양인들에게 남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William Elliot Griffis의 책, *Corea Without and Within*의 영향이 컸다. 이에 반해 언더우는 한국에 대하여 당시의 일반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인상과는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데, 1908년 뉴욕대에서 발표한 강연에서 잘 나타난다. 이 강연이 *The Religions of East Asia*로 출판되었다. Bright Myung-Seok Lee, "The Development of Ecotheological Thought in Korea: An Analysis of Primal and Christian Perspective," Akrofi-Christaller Institute of Theology, Mission and Culture, Ph. D. Dissertation (2018), 163-167.

35) 윤경로, "언더우드의 한국에서의 교육활동과 한국인식", 359.

면 일본사람처럼 무조건 모방하거나 따라하지도 않는다.³⁶⁾

특히 1910년에 출판한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종교를 비교하면서 도교, 신도, 샤머니즘, 유교, 불교의 신개념을 고찰하였다.³⁷⁾ 이 연구에서 언더우드는 당시 팽배했던 진화론적 관점의 종교이해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종교진화론자들은 자연에서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종교도 진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장 저급하고 미숙한 미신, 즉, 조상숭배와 주물, 자연숭배와 같은 종교에서 고상하고 영적인 지고의 하나님(Supreme God)에 대한 관념으로의 진화, 즉, 상승의 방향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오히려 종교는 상승의 방향이 아니라, 하강의 방향으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은 최초에는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다가 이후, 왕을 신의 자손이나 대리인으로 신격화하고, 그 다음에는 영웅, 조상, 자연의 힘이 다신교로 자연숭배로 나타났고, 저급한 미신들로 하강하였다는 것이다.³⁸⁾

언더우드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종교의 형태와 양식, 그리고 다양한 고대의 종교행사를 제시한다. 그는 한국종교를 분석하면서 고대에 행해졌던 제천행사, 천신신앙에서의 일신교의 뿌리를 찾으려 무속신앙과 정령숭배는 후대에 종교가 타락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파악했다. 언더우드는 고대의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로 보고 예배하였고, 이 일신교적 특성이 후대의 다신교사회의 변화속에서도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잔존했다고 주장하였다.³⁹⁾

언더우드의 한국전통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초기 한국선교에 있어서의 신명 선택의 문제로 이어졌다. 언더우드는 ‘하나님’이라는 전통 종교 안에서 존재하였던 신 개념을 도입하여 기독교 하나님의 신명으로 선택함으로써 매우 획기적인 상황화를 시도하였다. 설충수는 언더우드의 ‘하나님’ 신명선택에 대하여 처음에는 ‘하나님’ 용어를 수용하길 거부하였으나, 후에 한국종교, 특히 샤머니즘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용어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⁴⁰⁾ 그는 한국인의 ‘하나님’은 한국 샤머니즘에서 최고신의 개념으로 하늘과 같은 존재로 자연숭배를 넘어 직접적으로 그 초월성, 권능, 신성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언더우드는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창조주며, 모든 신을 통제하는 지고의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하나님’ 개념을 신명으로 채택하도록 지지하기에 이른다.⁴¹⁾ 이것은 언더우드가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의 접촉점을 찾으려 한 시도였으며, 이 ‘하나님’ 신앙이야말로 기독교복음을 준비하는 예배단계로 적합하다고 여겼다.⁴²⁾ 한국인의 전통종교 안에 들어있던 신명 ‘하나님’을 기독교의 신명으로 적합하게 제시한 것은 언더우드의 한국종교에 대한 깊은 연구와 관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5) 교회이해의 통전성

36)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한동수 역, 『와서 우릴 도우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55.

37) Horace Grant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김흥수, “언더우드의 한국종교연구”, 『언더우드 기념 강연집』, 116.

38) Horace Grant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231-234.

39) 김흥수, “언더우드의 한국종교연구”, 134.

40) 설충수, “제임스 레그(James Legge)와 호레이스 G.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신관비교연구”, 『장신논단』 Vol. 44, No. 1 (2012.4:107-130).

41) 위의 글, 124.

42) 위의 글, 125.

언더우드의 교회 이해 또한 에큐메니컬적이었다. 주재용은 언더우드의 신학이 폭넓은 에큐메니칼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즉, 언더우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의 구조로 믿는 청교도적 신앙과 기도와 말씀공부를 강조하는 경건주의적 부흥운동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선교적과제를 교회연합운동의 차원에서 풀어가려는 포용적인 신앙을 견지하였다고 평가한다.”⁴³⁾ 언더우드의 이러한 에큐메니컬적 교회이해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다양한 교파에서의 경험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태어났을 때에는 영국 국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하였고, 프랑스로 유학 갔을 때에는 가톨릭교회가 경영하는 학교에서 기숙사생활을 하여 가톨릭의 분위기를 익혔다. 그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에는 화란개혁파 교회에 출석하여,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구세군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가 되었다.⁴⁵⁾ 이러한 다양한 교파에서의 경험은 그의 교회에 대한 견해가 에큐메니컬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었을 것이다.

언더우드는 선교사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연합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는 먼저 미국의 남북장로교회가 함께 장로회공의회를 구성하였고, 후에 캐나다 장로교회와 호주장로교회가 참여하여 4개의 장로교 선교회가 함께 협력하였다. 1905년에는 미국의 남북 감리교회가 참여하여 6개의 선교부가 주축이 되어 한국개신교복음주의선교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가 구성되었다. 초대회장으로 언더우드가 선임되었다.⁴⁶⁾ 이와같이 언더우드는 한국선교의 초기부터 모든 영역에서 에큐메니컬적 사역을 진행하였다. 전도, 문서, 교육, 의료사역에 있어서 모든 교단의 선교사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는 교회를 통합하여 단일교단을 현지에 세우기를 원했다. 그가 설립하려하였던 대학도 구상하던 단계에서부터 감리교와 장로교의 연합대학을 꿈꾸었다.⁴⁷⁾ 그는 교파와 신학의 장벽을 넘어 선교에 있어서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피어슨기념성경학교를 세울 때도 미국북장로회, 남북 감리교회 선교회와 연합하여 세웠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감리교의 교파분열을 무시하고 장로교 선교사로서 감리교 선교부의 위임을 받고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에큐메니컬 정신이 뛰어났다. 장감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편지를 보낸 일도 있었다.⁴⁸⁾ 참으로 언더우드의 사상 속에는 교회이해의 통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송길섭은 다음과 같이 그의 폭넓은 에큐메니컬 신학과 실천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는데 그 내용이 언더우드의 교회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잘 드러내어 인용해본다.

[언더우드는] 복음의 포괄적인 요소를 거의 포함한 복음진리의 보편성을 수용하고 있으며 어떤 특정 교리에만 매달리는 편협성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죄는 오로지 예수의 힘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편성을 믿고 있다. ...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또 누구의 학설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고 순수한 그리스도 중심의 단순한 신앙을 초기부터 강조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복음주의적 신앙유형 형성에 한몫을 하였다.⁴⁹⁾

43) 주재용, 『한국그리스도교 신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74-79.

44)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의 이상과 실현”, 416.

45) 위의 글, 416.

46) 위의 글, 380.

47) 위의 글, 416.

48) 위의 글, 417.

49)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44.

이제 요약해보자. 언더우드의 선교 실천이 통전적이었던 것은 처음부터 형성되었기보다는 사역의 현장에서의 다양한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필자가 주장한대로 “통전성”이란 “온전함과 충만함에 이르는 발견의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언더우드의 삶과 생각, 실천의 모든 면모도 그의 생애를 걸쳐서 이러한 통전성을 향한 여정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통전성은 선교사역의 시작부터 형성되었기 보다는 다양한 접촉과 만남, 갈등을 통한 사고의 확장과 수정의 과정 등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언더우드의 통전성을 필자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의료활동을 복음전도사역이 융합되었고, 미시오 데이 관점에서 교육사업의 독특성이 확보되는 보다 넓은 선교이해를 견지하고 있었고, 그의 인재양성의 통전성은 교회지도자뿐 아니라, 사회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였고, 현지문화이해의 통전성은 당시 대부분의 서양인들의 관점과는 달리 현지문화와 종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도록 도왔다. 그의 교회이해의 통전성을 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도 에큐메니컬적 교회이해를 통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통전성을 보였다.

4. 21세기 팬데믹 시대의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한 제언: 언더우드의 통전적 선교를 통한 교훈

필자는 앞장에서 언더우드에게 나타나는 통전적 선교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언더우드의 통전적 선교이해가 오늘날 21세기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교적 교훈은 무엇인가? 과연 언더우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통전적 선교의 과제를 제시하는가? 물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19세기 말의 한국사회안에서 통전적 선교를 실천하려 하였던 언더우드가 보았던 통전적 선교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2장과 오늘날의 통전적 선교에 대하여 논하였다. 필자의 주장은 분명한데, 오늘날 우리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통전적이어야 한다. 이 통전성은 언더우드에게서 발견되는 통전성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 필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시대에 필요한 통전성을 포괄적 통전성이라고 명명하며 본 장에서는 21세기 한국사회, 특히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시대에, 교회가 실천해야 할 포괄적 통전적 선교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또한 21세기 선교는 어떤 선교로 발돋움해야 할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생태학적 실천을 포함하는 선교어로

21세기 타문화권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포괄적 통전적 선교는 생태계를 아우르는 선교사역이 수행되어야 한다.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새로운 바이러스를 인한 인류의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선교학적 응답을 제공하는 선교신학이 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21세기 통전적 선교신학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을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포함시켜야 한다. 19세기 말 조선땅에서의 언더우드는 그 시대를 반영한 통전적 선교신학과 실천을 수행하였다. 언더우드는 당시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복음전도를 강조하면서 의료, 교육, 구제사역을 전도를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관점을 견지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통전적 인간 이해에 근거하여 복음전도사역과 의료사역, 교육사역, 구제사역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Missio Dei 선교이해, 즉, 통전적 선교이해를 견지했다. 그러나 21세기의 통전적 선교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받는 요즘,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할 통전적 선교는 생태신학적 차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

사실 통전적 선교는 과거에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를 확장되어 사회, 정치적 구조 안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로 확대되면서 제시된 것이다. 1975년 방콕대회에서 ‘오늘의 구원’을 선언하면서 등장한 통전적 선교는 그동안 영혼구원을 위한 구령사업만을 선교로 보는 견해가 현재 지금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 라는 고민에서부터 탄생한 것이다. 결국 당시 직면한 인간실존에 대한 성찰이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통전적 선교이해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인간실존에 대한 이해는 이후 더욱 확장되어 2005년을 전후로 하여 경제적,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인간이해로 확장되면서 아가페 문서나, 제국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선교로 확대되었다. 이 또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인간실존에 대한 선교적 대응으로 통전적 선교는 계속 온전함과 충만함을 향한 새로운 발견의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통전적 선교는 온전한 존재로서의 인간(Whole Person)뿐 아니라 생명의 모든 영역에서의 온전한 풍성함을 지향하며, 통전적 구원이란 영적이며, 육신적이며, 심리적이며, 물질적이며, 사회적이며, 경제적이며, 환경적이며, 정치적인 모든 차원을 포함하며, 통전적 구원을 위한 교회의 통전적 선교 또한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인 상황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⁵⁰⁾

필자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전 세계는 뉴노멀 시대의 삶에 진입하면서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간실존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실존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생태 그물망 속에서 연결되어 존재하며, 온 세상의 피조물의 생태계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동시에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인간이 스스로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저주를 스스로 초래한 그 현실을 목도하게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인간실존의 과제 앞에서 교회의 선교는 이에 대한 선교적 대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서의 생태신학적 차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선교이해의 확장은 온전함과 충만함의 발견으로서의 여정, 즉, 통전성을 향한 확장의 여정이다. 이제 포괄적 통전성의 여정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해야한다.

2) 공감과 환대를 실천하는 선교어로

언더우드와 도착하여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조선땅은 개화와 사회개혁의 과제를 앞에 두고 심각한 외세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던 격동의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언더우드는 기독교신앙을 전파함으로써 조선인의 영혼구원만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조선의 왕실과 협력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쳤고, 릴리아스 언더우드는 명성황후의 친구가 되었고, 개화를 위한 과감한 행보를 격려했고,⁵¹⁾ 언더우드는 일제의 잔인한 폭도에 의해 살해당한 비통스러운 아내의 주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고종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고종의 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콜레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민중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다른 의료선교사들과 함께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한 예방법을 널리 알리고, 잘못된 방역 상식을 바로잡고, 콜레라의 발병 원인과 전파의 원리, 감염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⁵²⁾

언더우드가 당시의 조선땅의 아픔에 응답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통전

50) Sherron George, "God's Holistic Mission," 291.

51)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 199.

52) 위의 책, 176.

적 선교도 우리시대의 아픔에 응답하는 선교가 되어야한다. 21세기 한국교회가 직면한 선교적 과제는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전염병의 추가적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먼저 방역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보다 더 높은 윤리적 삶을 통한 모범적 삶의 실천을 하는 일을 포함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언급한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 삶의 가시성 그 자체가 선교적 행위가 된다.⁵³⁾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이웃은 갑작스러운 고통의 현실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필자도 친언니를 코로나 19로 잃게 된 후 삶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시민적 일반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때의 교회의 선교는 논리적 차원의 통전성을 넘어서서, 고통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공감과 환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성육신적 선교가 되어야한다. 여기 포괄적 통전성은 신학의 논리성을 넘어서 아픔의 현장으로 스며드는 성육신적 동행과 공감과 환대의 구체적 실천이다. 공감과 환대를 통한 교회의 성육신적 동행의 선교는 고난받는 현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며, 사회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하고 공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교회의 선교는 상처입은 사람들을 향한 환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한가지 명심할 것은 교회 자신이 스스로 상처입은 치유자가 될 때 공감과 환대의 선교는 진정으로 가능해진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고난의 순간에 이웃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감과 환대의 실천으로서의 선교는 고난을 통한 자신의 상처입음의 경험 없이는 불가능하며, 교회의 선교는 그제서야 참다운 공감과 환대의 선교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교회가 고난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공감과 환대의 선교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성있는 선교적 실천이 된다.

3) 여성과 남성의 동반자적 협력의 선교으로

한 사람의 선교이해는 주위의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한다. 언더우드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 바로 그의 아내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이다. 그녀는 독신의 몸으로 조선 땅에 도착하여 의료선교를 펼친 당찬 여성이었다.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는 31세가 되어 늦게서야 의료선교사를 목표로 시카고 여자의대(Woman's Medical College of Chicago)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었고, 37세의 나이로 1888년 3월에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는 제증원의 부인과의 딸로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38세 되던 1889년 3월에 8살 연하인 언더우드와 결혼하였다.⁵⁴⁾ 릴리아스는 처음부터 독신여성선교사로 파송 받았기에 뚜렷한 선교사로서의 자의식과 의료사역에 대한중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며 명성황후와도 남다른 우정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외교력을 지닌 여성이기도 했다. 결국, 릴리아스 호튼의 모습은 빅토리안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상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을 것이다. 8살이나 연상이었던 그녀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언더우드의 통전적 선교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는 문장 구사력이 뛰어난 문필가이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Fifteen Years of Among the Top-Knots* (1904)⁵⁵⁾, *With Tommy Tompkins in Korea*

53) Christopher Wright, *The Mission of God*, 정옥배, 한화룡 역,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0), 478

54) 이만열, “역자 서문”,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저, 이만열 역, 『언더우드: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개신교의 시작이야기』 (서울: IVP, 2015), 15.

55) 한국어로는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생활: 상투쟁이와 함께 보낸 십오년 세월』 (김철 역, 뿌리깊은 나무, 1984)로 부분 번역되었고, 이후 동일한 책이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으로 수정하여 재출간되었다.

(1905), *Underwood of Korea*(1918)⁵⁶⁾이 있다. 이 책들을 통해서 그녀는 탁월한 관찰력과 예리한 통찰력, 여성다운 섬세함으로 유감없이 자신의 필력을 발휘하였다. 이 책들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필체, 뛰어난 묘사력과 풍부한 유머 감각으로 당시의 상황을 그려냄으로써 생생하게 한국초기선교의 역사를 조명하였다. 비록 그녀의 글에서 발견되는 “기독교문명에 대한 절대적 우월감”과 “서양중심적 편견”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대와 상황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한 개인에게 사태에 대한 더 깊고 많은 뜻을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⁵⁷⁾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역사의 기술에 있어서도 남성중심의 역사기록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사실, 그동안 선교역사방법론은 매우 남성중심적이며, 공적영역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사적인 영역에 주로 남겨져있었던 여성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은 자주 무시되거나 기껏해야 남성선교사의 ‘부록’ 정도로 기록되어왔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교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종종 미시적 역사방법론(micro-historiography)이 사용되었다.⁵⁸⁾ 여기 릴리어스 언더우드의 미시적이며 네러티브적 역사기술은 여성선교사로서의 자신의 독특한 필체로 언더우드의 삶을 그려냄으로써, 위대한 선교사 언더우드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물로 부활시키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책, *Underwood of Korea* 에서 릴리아스 언더우드는 분명하게 집필 목적으로 이렇게 밝힌다. “이 책은 한 개인의 선교사업에 대한 완벽하고 철저한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 그의 성품, 난관극복, 방해와 반대에 대한 대처방법, 그리고 그의 헌신, 신앙, 사랑, 인내 불굴의 의지 등 한 인간으로서의 그를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책을 저술하였다고 언급한다.⁵⁹⁾ 이것은 영웅으로서의 선교사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여성적 글쓰기이다. 최근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낸시 토마스(Nancy Thomas)는 네러티브야말로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한다.⁶⁰⁾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것이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들이 동참하도록 이끈다.

이와같이 21세기의 포괄적 통전성의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교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에 여성들의 참여가 온전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와 같은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21세기 포괄적 통전성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남녀 참여자의 온전한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4) 일방적 선교에서 에큐메니컬 우정의 선교으로

언더우드는 “복음의 열정”과 “넓은 날개”를 동시에 가진 선교사였다. 평양지역의 장로교선교사들에 비해 보다 넓은 에큐메니컬 선교이해를 견지한 점, 가능하면 교파 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위한 노력을 펼친 것은 대단히 선각자적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며, 현지문화에 대

56) 한국어로는 『언더우드: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시작이야기』로 번역되었다.

57) 김 철, “역자의 말,” 『언더우드부인의 조선 견문록』, 315.

58) Christine Lieneman-Perrin, Atola Longkumer, Afrie Songco Joye, *Putting Names with Faces: Women's Impact in Mission History*, (Delhi, India: ISPCK Publisher, 2014), 16.

59)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언더우드: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시작이야기』, 19.

60) Nancy Thomas, “Following the Footprints of God: The Contribution of Narrative to Mission Theology,” in *Footprints of God: A Narrative Theology of Mission*, Charles Van Engen, Nancy Thomas, and Robert Gallagher, (eds.), (Monrovia, CA: MARC Publisher, 1999), 226.

한 우호적인 태도 또한 당시의 서구인들의 세계관보다는 훨씬 통전적인 것임은 분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대의 문화 식민주의적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었다. 그의 선교는 서양문명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풍전등화의 정치적 격동의 시기에 고통받던 조선의 민중을 돕기 위해 복음과 함께 서양문명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서양 의학과 서양교육 시스템의 전달을 통한 근대화야말로 한국사회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더우드의 선교는 서구에서 비서구로의 일방적 선교의 유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지금의 시대는 문화식민주의적이며 일방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을 넘어 서야한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는 선교의 시대이며,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의 등장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21세기 시대의 진정한 통전적 선교는 세계 교회들 간의 다자간 선교적 대화를 통한 에큐메니컬 우정 선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것이 포괄적 통전적 선교의 한 면모이다. 그렇다면 에큐메니컬 우정선교란 무엇인가? 1950년 이후 본격화된 에큐메니컬 선교의 핵심은 나눔에 있었다. 이 나눔은 물질/재정적 자원 (Material/Financial Resources)의 나눔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의 나눔으로 발전되고, 나아가 경험적 자원(Experiential Resource)의 나눔으로 이어진다. 이 경험적 자원의 나눔은 결국 나아가 신학적 자원(Theological Resource)의 나눔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최근에 에큐메니컬 선교의 나눔은 정서적 나눔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정운은 이러한 정서적 차원의 나눔을 동지적 우애감의 나눔이라고 말한다. 서정운은 “진정한 일체감은 지적이고 관념적이라기보다 우선 정서적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지적 우애감이 없는 나눔은 참다운 나눔이 아니다.⁶¹⁾ 김영동은 에큐메니컬 선교를 열정을 담은 ‘우정선교’로 표현한다.⁶²⁾ 그는 각자도생의 가치가 뿌리깊게 내린 한국선교는 반선교적이며 교회 위기의 원인 되었다고 한탄하며,⁶³⁾ 우정의 선교야말로 오늘날의 선교가 나가야할 방향임을 강조한다. 특히 미국의 여성선교학자 다나 로버트(Dana Robert)는 글로벌 선교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우정의 중요성을 주목한다. 다나 로버트는 우정이야말로 문화 간의 다리, 즉, 동양과 서양, 아프리카와 서양, 동양과 아프리카, 중남미와 서양 등의 문화간의 가교를 형성하는 것이었다고 역설한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쉽게 연결되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욱이 글로벌 우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고 하였다.⁶⁴⁾

여기서 필자는 필자가 경험한 에큐메니컬 우정선교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싶다. 그것은 2007년 독일 교회의 팔주 노회와, 한국의 영등포 노회, 가나 장로교회의 3자간의 협력으로 지난 수 십 년간 진행되었던 가나에 소재한 컴퓨터학교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이 3자간의 협력은 재정적 협력, 인적자원의 교류로 이어졌다. 한국 선교사가 가나로 파송되었고, 컴퓨터 학교를 위한 사역의 후원은 독일교회, 한국교회가 함께 부담하였다. 삼자간의 에큐메니컬 선교는 2010년 가나교회와 한국교회간의 새로운 협력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의 장로회신학대학교에 매년 가나에서 1-2명의 가나장로교회의 목회자를 보내 수학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에큐메니컬 선교가 신학교육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필자는 이 단계의 신학교육의 에큐메니컬 협력선교에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외국인학생들을 위한 강의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에큐메니컬 협력사역은 지난 2020년에 10년간의 사역을 마무리

61) 서정운, “아시아신학의 나눔과 모색,” 2015년 5월 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학술대회 기초연설, 9쪽.

62) 김영동, 『우정의 선교, 열정을 붙잡다』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9), 8.

63) 위의 책, 9.

64) Dana Robert “Global Friendship as Incarnational Missional Practic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39, No. 4 (2017), 180.

하였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필자가 속해있는 신학교에서 수학한 가나 목회자들을 필자가 지난 2020년 1월에 가나를 방문하여 감격적인 만나게 됨으로써 에큐메니컬 우정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지난 10년간 수업으로 만난 외국인학생 동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우정선교의 쌍방향 교류가 가능해진 순간이었다. 이때, 자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쳤던 교수가 자신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큰 슬픔을 경험한 것을 듣게 된 가나 졸업생들은, 깊은 연민과 공감과 환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 순간은 에큐메니컬 협력선교는 정서적 나눔을 포함한 우정 선교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신학적 나눔의 에큐메니컬적 나눔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일체감의 우정의 나눔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나와 한국간의 에큐메니컬 나눔의 선교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처음 삼자간의 에큐메니컬 선교가 진행될 때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이명석 선교사는 가나의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서 신학교육을 통한 나눔은 가나교회의 입장에서 상호배움의 나눔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가나의 신학교에서의 첫 박사과정을 마친 이명석 선교사는 에큐메니컬 우정선교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필자와 함께 한국암스펠로십⁶⁵⁾의 발족을 통해서 21세기 에큐메니컬 우정선교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⁶⁶⁾

필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인데, 즉, 21세기 포괄적 통전성의 선교는 정서적 교류, 우정의 나눔이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포괄적 통전성은 장기간의 에큐메니컬 연대와 교류를 통한 겸손함속에서의 우정의 나눔을 실천함으로 가능해진다.

6. 나오는 말

19세기말 동방의 은둔의 나라로 처음 파송받아 한국선교역사에 잊지못한 공헌을 남긴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에 대한 깊은 열정과 넓은 선교이해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열정적인 삶과 사역은 몇 개의 글이나 책으로 정리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사역을 펼쳤다. 한국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셈이다.

필자는 언더우드의 선교를 통전적 선교라는 선교 신학적 틀거리로 정리해보았는데, 그것은 21세기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과제가 통전적인 선교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물론 21세기 통전적 선교는 언더우드가 보여주었던 통전적 선교의 모습과는 동일할 수 없다. 언더우드는 19세기 말의 시대적, 공간적 한계 속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의 선교를 살피면서 필자가 도달하기를 바랬던 21세기 통전적 선교의 모습은 뜻밖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바라기는 이 글의 ‘과거 돌아보기’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현재 해답 찾기’ 뿐 아니라, ‘미래로 향해가기’의 단초 제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65) 한국암스펠로십(Korean IAMS Fellowship)은 한국의 차세대 선교학자들을 세계교회를 섬기는 선교학자로 발굴 및 육성하는 단체로 2020년 6월 25일에 시작하였다.

66) 이 이야기는 2020년 5월에 이명석 선교사와의 개인적 나눔을 통해서 확인하였음.